

AI 지역전파 차단 '올인'

익산시, 철새도래지 드론방제 현장행정… 방역강화 주문
H5형 항원검출 농장 살처분 마무리, 오리휴지기제 시행

정현율 익산시장이 지역 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자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정 시장은 30일 춘포면 철새도래지 드론 방제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신홍동의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AI 항원 검출 이후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날 새벽까지 해당 농장 오리들에 대한 살처분을 마무리한 관계들을 격려했다.

정 시장은 “지역 내 AI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전예찰과 방역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달라”며 “농장 관계자들도 스스로 차단방역을 실천하는 등 AI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